봉쥬르! 피카소·샤갈·미로… 그리고, 달리

광주롯데갤러리 8월 1~31일
'봉쥬르 유럽전' 개최
작가 11명의 회화·판화·도자기
20세기 대표작 30여점 전시

파블로 피카소, 마르크 샤갈, 호안 미로, 살바도르 달리….

올 여름 20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현대미술을 주도했던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이 광주를 찾는다. 광주 롯데갤러리는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럽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봉쥬르 유럽'전을 개최한다.

살바도르 달리 '초현실주의 꽃 소녀'

마르크 샤갈 '이즈바의 연인'

이번 전시에서는 헨리 무어, 세자르 발다치니, 아르망 피에르 페르낭데, 막스 노이만, 피에르 알레친스키, 로베르 콩바스, 나탈리 미엘 등 작가 11명의 회화, 판화, 도자기 등 모두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작품들은 가나아트 소장품이다.

유럽에 있어서 20세기는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 정치·사회적으로 큰 시련을 겪었던 시기였다. 사회적 혼돈 속에서 미술계에서도 새로운 사회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에 발맞춰 폭넓은 미학적 실험이 이뤄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유럽 예술가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예술과 현실에 대한 고민들을 특유의 조형적 방식으로 담아내고자 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인간성의 상실과 재발견이라는 시대적 소명 아래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시에서는 혼돈의 시대를 예술로 극복한 위대한 예술가들의 열정과 희망을 만날 수 있다.

러시아 출신인 샤갈은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했다. 그는 야수파, 입체파 등 어느 한 미술사조에 국한되지 않는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특히 전시에 소개되는 '이즈바의 연인'처럼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랑하는 여인과의 아름다운 기억과 같은 인생의 서사를 환상적인 구도와 풍부한 색감으로 표현했다.

'거대한 마법사' '형상 Ⅰ 별Ⅶ'은 자유분방한 곡선과 형상들, 밝고 원색적인 색채를 사용해 어린 아이의 그림과 같은 화풍을 구축한 호안 미로의 작품 세계를 잘 보여준다. 그는 태양이나 별 등 연금술이나 천문학에서 사용되는 상징 기호와 문자들을 자주 사용해 은유적이고 추상적인 느낌을 드러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의 이론에 심취한 작가다. 그는 끊임없이 인간 무의식 속 꿈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환각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도 했다. '초현실주의 꽃 소녀' 등과 같이 시공간을 알 수 없는 배경 속에 비논리적인 이미지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파블로 피카소 '얼굴'

특징이다.

스페인 출신의 현대미술 최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는 파리로 이주한 이후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입체주의'라는 새로운 미술사조를 탄생시켰다. 원근법을 무시하고 다각도의 모습으로 대상을 해체, 분해해 하나의 화폭 안에서 표현한 양식이 입체주의다. 이번에 전시되는 '얼굴' 등 도자기 위에 그려진 작품도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막스 노이만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신비스럽고 음울한 인물이 항상 등장하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간소한 드로잉과 블랙, 레드, 화이트, 다크 그린, 옐로우로 한정되는 미니멀한 컬러만을 사용했다. 문의 062-221-1807~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여자이기에 … 모든 나날들은 꽃잎이었다

이선희 개인전, 8월 1일까지 로스터 갤러리

지그시 눈을 감은 여인 주위로 흩날리는 물망초 꽃, 살짝 고개를 돌린 여성의 목선, 한 송이 작은 꽃을 들고 뒤돌아선 여성, 긴 머리를 묶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 한없이 아름답기만 할 것같은 여성들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난다.

한국화가 이선희씨의 개인전이 잇따라 열린다.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제3회 신인작가기획전에 선정돼 오는 8월1일까지 전시회를 열고, 갤러리지노 작가 공모 우수상 수상 기념으로 8월6일~9월30일 개인전을 갖는다. 작가는 슬픔과 공허, 젊음과 아름다움이 함께 담긴 작품을 통해 젊은 여성들의 아픔과 연민을 다룬다. 때문에 아름다우면서도 애잔함이 묻어난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이씨는 광주시 문화예술인상 허백련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383-010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오후의 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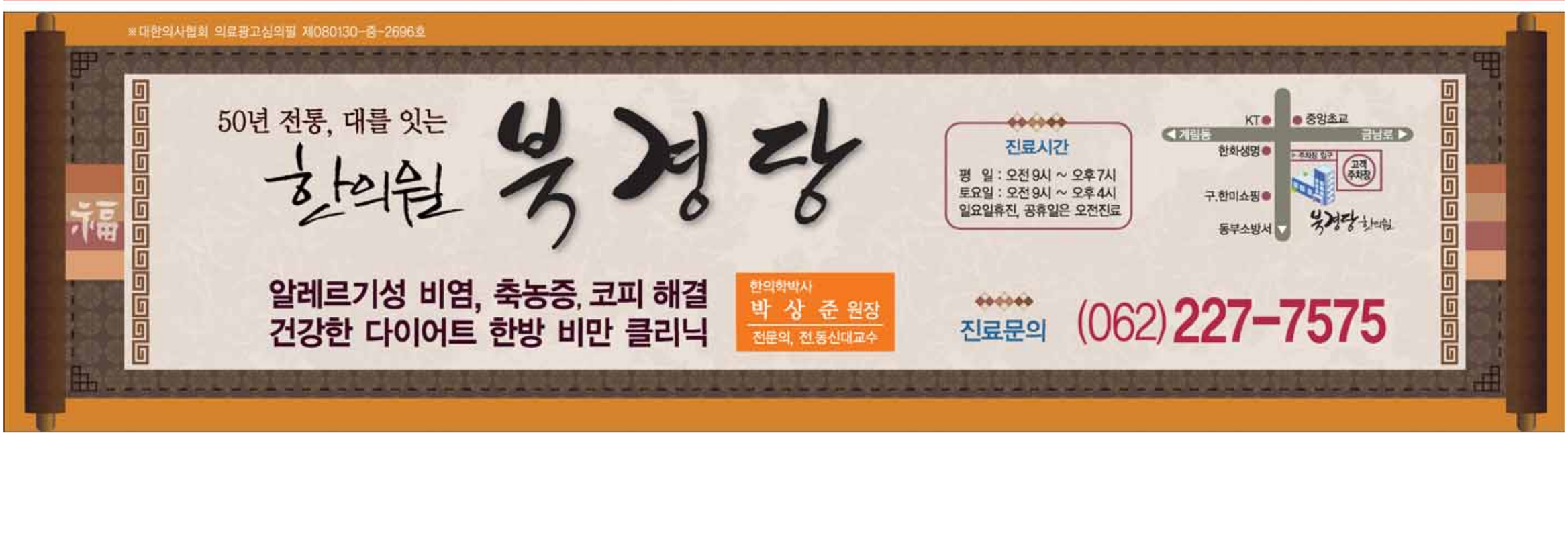
놀이패 신명, '광복70주년…' 일본 무대에 선다

8월 5일 나고야, 7일 오사카서 공연

일본 민간·예술단체와 꾸준히 교류를 가져온 놀이패 신명이 일본에서 열리는 '광복70주년,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 기념행사' 무대에 선다.

이번 공연은 일본 NPO법인(비영리특별활동법인) 삼천리 철도 초청으로 이뤄졌다. 삼천리 철도는 2000년 남북정상들의 공동선언을 기념하고 남북 비무장지대의 철도건설을 이루기 위해 만든 일본 내 민간법인이다. 그동안 매년 공동선언기념일에 맞춰 각종 강연회, 세미나, 공연 등을 주최했고 남북한 정부에 남북철도연결 기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초대작은 마당극 '술래소리-윽신악신 뛰어나보세'다. 우리 지역 민속놀이인 강강술래를 기본줄기로 삼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역동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공연은 오는 8월 5일 일본 나고야 치쿠사 문화소극장과 7일 일본 오사카 KCC회관에서 두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기념행사

에서는 공연과 함께 초청 강연회, 한일 예술가 교류회 등도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527-72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